



1. 가축방역 현황

국 내의 가축전염병 발생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도 이전에는 열악한 사육환경과 검역여건에도 불구하고 청정국 중심의 교역으로 질병 유입기회가 적어 돼지오제스키병·유행성설사 등 토착형 일반질병들이 발생하였으나, 2000년도 이후에는 동북아 등 방역상황이 좋지 않은 국가들과의 교역이 증가하여 구제역·돼지콜레라 등 경제적 피해가 큰 악성질병이 유입기회가 증가되었다.

2000년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이나 돼지콜레라 등의 방역추진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우리나라 가축방역당국의 악성가축전염병 방역 대처능력은 국제적으로 인정될 정도로 향상된 반면 재발방지를 위한 농가단위의 예방활동은 아직도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구제역은 2000년에 이어 2002년에 16건이 발생하였으나 신속한 살처분과 엄격한 이동통제 등 방역조치의 결과로 2002년 11월에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청정국 지위를 재인정 받았지만, 돼지콜레라의 경우 그동안 청정화 추진에도 불구하고 2003년 3월 경기도 소재의 종돈장을 중심으로 전국적 동시다발로 인해 불가피하게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정책으로 전환한 바 있다.

돼지오제스키병과 전염성위장염은 예방약 지원 등으로 발생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지만 유행성설사병은 최근에도 발생빈도가 상당히 높아 농가에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유후전신소모성증

창간 25주년 특집

질병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전략



김태웅 수의사무관
농림부 가축방역과

질병 차단을 위한 국경검역 및 방역정책

**해외악성전염병의 국내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구제역 위험지역
운항노선 · 출입국자 집중관리, 육류 불법반입자 범칙금 처분,
검역탐지견 · 발판소독조 운영 등 유입경로별 국경검역 활동을 강화하고
외국동향을 신속히 파악하여 검역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시켜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후군(PMWS)이 양돈산업을 괴롭히는 신종질병으로 등장하고 있으나 발생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특별한 치료나 예방대책이 알려지지 않아 현재로서는 농장단위의 위생적인 사양관리 이외에 빠른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돼지콜레라 근절을 위해 지난 1996년 근절대책 수립 이후 양돈농가와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추진했던 노력을 생각하면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가축전염병을 박멸하고 청정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2. 주요질병별 방역추진 방향

가. 구제역

구제역은 금년 들어서도 말레이시아, 몽골, 러시아에서

발생되는 등 주변국 여건을 고려할 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구제역 재발위험이 높은 3~5월간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국경검역과 국내방역을 강화하여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는 구제역 유입을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특별방역대책기간 이후에도 몽골·태국 등 구제역 위험국 운항노선에 탐지견을 집중 배치하고, 여행객 휴대품 검색강화와 입국장 발판소독조 운영, 수입건초 및 피항선박 소독 등 국경검역과 「전국일제소독의 날」 축사소독 및 혈청검사 등 예찰활동을 통한 국내방역 강화를 소홀히 할 수가 없다.

농림부에서는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구제역 방역과 관련한 환경오염·동물복지·국민생활 불편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 실시방안을 이미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백신 완제품 30만두분과 항원뱅크 430만두분을 확보하고 있다.

나. 돼지콜레라

2003년 3월 전국적 예방접종 실시 이후 금년에는 면역형성률이 지속적으로 95% 이상 유지되고는 있으나 바이러스가 널리 퍼져 있어 간헐적인 발생이 지속되고 있으며 근절에 장기화가 예상된다.

돼지콜레라는 2003년 9월 수립한 돼지콜레라 방역강화대책과 이를 제도화한 돼지콜레라방역실시요령을 충실히 이행하여 혈청검사를 통해 적발된 예방접종 미실시(항체양성률 80% 미만) 농가와 돼지판매·출하시 예방접종확인서 휴대명령 위반농가에 대해서 벌칙(500만원 이하 과태료) 적용을 강화하는 한편 고역가항체 보유모돈의 조기도 태를 유도하여 감염원을 조기

에 제거하여 청정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다.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오제스키병은 2001년부터 혈청검사 및 살처분(도태) 강화로 발생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지난해 말 강원 철원지역과 최근 경남 김해지역의 사례에서 보듯이 방역당국의 반복적인 홍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간상인을 통한 딸이돼지 구입에 의한 발생이 확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돼지오제스키병은 주로 딸이돼지 유통으로 병원체가 확산되고 있으며, 외부증상이 뚜렷치 않아 혈청검사 이외에는 발견이 어렵고, 폐사율도 낮아 농가의 근절의지가 약하

여 근절에 어려움이 있지만 과거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예방접종을 강화하고 일제검사를 통한 감염 모돈의 조기도태로 청정화 기반을 마련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3. 중점 추진계획

우선 해외악성전염병의 국내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구제역 위험지역 운항노선·출입국자 집중관리, 육류 불법반입자 범칙금 처분, 검역탐지견·발판소독조 운영 등 유입경로별 국경검역 활동을 강화하고 외국동향을 신속히 파악하여 검역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시켜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국내방역 강화를 위하여 농가교육, 농장

혈청검사 확대 등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농가의 방역의식을 점차 높여가도록 할 계획이다.

농장소독·예방접종·가축거래기록 유지 등 방역규정이행확인 및 위반농가 법적처분을 철저히 하고, 예방주사 등 방역비용의 농가분담을 통해 방역에 대한 농가의 책임의식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질병관리등급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여(농장→마을→시·군) 방역사업 추진과 방역비 지원의 차별화를 통해 농가 자율방역 의식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다.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조기종식목표로 살처분·예방접종 등 초동방역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구제역·돼지콜레라 등 그간의 방역경험에 기초한 전염병별 방역실시요령과 SOP에 따라 발생지역 지자체를 중심으로 방역활동을 전개하되, 환경 및 동물복지 문제를 고려하여 살처분의 최소화 및 이동통제 강화 등 방역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차단방역 조치를 소홀히 하고 방역규정을 위반한 농가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



▲ 제주 공항에 설치되어 있는 구제역 안내 표지판과 소독판

국내방역 강화를 위하여 농가교육, 농장 혈청검사 확대 등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농가의 방역의식을 점차 높여가도록 할 계획이다.

농장소독·예방접종·가축거래기록 유지 등 방역규정 이행확인과
위반농가 법적 처분을 철저히 하고, 예방주사 등 방역비용의 농가분담을 통해
방역에 대한 농가의 책임의식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다.

및 살처분보상금 차등지급을 통해 규제를 하고, 방역규정의 위반정도에 따라 사육제한 및 농장폐쇄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타농장에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방역소홀 지자체에 대해서는 축산관련사업비 차등지원 등 불이익 조치와 아울러 우수 지자체에 대하여는 포상을 실시하여 적극적인 방역사업 추진을 유도하고 농림부·지자체·방역본부·농가의 역할분담과 협조체제를 구축할 것이다.

방역조직·인력의 확대를 위해 공익수의관제의 도입과 가축방역 보조인력의 확충으로 방역인력을 보충하도록 할 계획이며, 민간방역의 중추역할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방역본부의 인력·예산지원도 확충할 계획이다.

끝으로 최근 국제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질병 비발생



● 구제역·돼지콜레라 등 그간의 방역경험에 기초한 전염병별 방역실시요령과 SOP에 따라 발생지역 지자체를 중심으로 방역활동을 전개하되, 환경 및 동물복지 문제를 고려하여 살처분의 최소화 및 이동통제 강화 등 방역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 인정” 요구에 대비하여 사전 대응체계로서 동물·축산물 교역시 가축질병 비발생 지역 인정절차를 마련하여 과학적 위험분석에 기초한 국경 검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위와 같은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사전예방 위주의 선진방역체계 구축을 위하여 가축전염병별 방역대책을 재정비하고, 예찰활동 강화

및 방역조직·인력의 보강을 위한 가축방역종합대책을 마련중이다. **양도**

